

#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사회성 지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others' Involvement of Their Preschool Children's Peer Relations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부  
전임강사 안 선 희

Major in Child & Family, Kyung Hee University  
Full-time Instructor: Ahn, Sunhee

## 〈목 차〉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involvement of their children's peer interaction, their memory of childhood peer relations, and their perception of children's social competence. Subject consisted of 302 mothers of 4- to 6-year-old children. A sample of mothers completed a series of questionnaires assessing their peer experiences, perceptions about their children's sociability, and a behavioral checklist of their involvement activities. The results indicated that mother's own sociability and their perceptions of their children's sociability influenced their involvement. More intense maternal involvement occurred when mothers perceived their children to be sociable. Mothers with sociable peer recollections appeared to take more active role in their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 key word: 사회성 지도, 아동기 또래관계

### I. 서론

과거 오랫동안 또래관계에 문제가 있는 유아는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 분야에

대한 종단연구의 결과는 유아기의 또래배척이나 공격성이 청소년기 뿐 아니라 심지어는 성인기의 대인관계 문제와 심리적인 부적응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Hymel, Rubin, Rowden, & LeMare, 1990;

Kupersmidt & Coie, 1990). 그러나 또래 인기도는 이후의 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성공적인 또래관계는 사회적 유능성을, 성공적이지 못한 또래관계는 후기의 부적응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간주됨에 따라 사회성 발달은 유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 중의 하나로써 사회적 구성원으로 성장해 가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되고 있다(Mills & Rubin, 1990).

과거에는 유아의 대인관계의 어려움이나 또래집단에서 낮은 수용도 등이 유아자신의 개인적 특성(예를 들어 신체적인 외모, 학업기술, 사회적 인지나 신념)과 관련지어 조사되어왔다(Dodge, Coie, & Brakke, 1982; Dodge & Frame, 1982; Vaughn & Langlois, 1983). 그러나 80년대 말에 이르러 연구자들은 유아 개인의 특성 이외의 요소들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또래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부모의 역할에 대해 탐색하기 시작하였다(김상희·박성연, 1990; 김숙경, 1989; Parke, MacDonald, Beitel, & Bhavnagri, 1988). 이들은 유아들의 또래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가족-유아체계, 유아-또래관계라는 두 체계를 연결하여 조사하였는데, 이와 같은 관점은 생태학적 이론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즉, 유아의 사회성에 관한 연구는 가족과 또래 문화체계 각각을 고립시켜 보기보다는 개인, 가족, 이웃, 지역 사회 등과 같은 보다 큰 사회적 체계 내에서 연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가족-유아체계, 유아-또래체계의 연결이 타당하다는 것은 많은 연구결과에 의해 지지되었다. 예컨대, 유아와 가족구성원간의 관계 및 상호작용은 기본적인 사회적 유능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Putallaz & Heflin, 1990).

최근에는 가족이 유아의 사회적 삶에 관여하는 방향도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인 두 개의 경로로 구분되어 유아의 또래관계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Parke et als., 1988). 간접적 경로란 부모가 자녀의 또래관계를 개선시키려는 목표를 가지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부모의 행동이 자녀의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주게 됨을 지칭한다. 주로 부모의 양육방식이나 행동, 애착관계의 질 등이 여기에 속하며, 부모가 궁

정적인 양육방식을 가지거나 자녀와 안정된 애착이 형성되면 결과적으로 사회적 유능함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김지신·박성연, 1997; 박응임, 1998; 연미희, 1998; 조은영, 1996; Park & Waters, 1989; Pettit, Clswson, Dodge, & Bates, 1996; Putallaz & Heflin, 1990).

반면, 직접적 경로란 부모가 자녀의 사회적 유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들의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환경을 선택, 수정, 구조화하는 수단으로 행해지는 부모의 행동, 즉 사회성 지도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사회성 지도란 자녀의 놀이상황이나 장소와 같은 사회적 환경을 계획·선정하고, 놀이친구의 유형과 접근을 감독하며, 또래 상호작용을 계획·지도하는 부모의 활동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유아의 또래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부모에 의해 주도되고 계획된 활동, 또는 유아나 혹은 외적 요구에 의한 반응(예: 이웃 아이와 놀려는 유아의 요구에 대한 반응, 바람직하지 못한 또래와 놀지 못하게 행동 등)으로 행하되 보다 자발적인 활동 등이 포함된다. 부모가 자녀의 또래관계를 지도하거나 참여하는 것과 같은 사회성 지도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유아의 사회적 삶에 대한 계획자, 관리자, 중재자, 감독자, 혹은 상담자의 역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예컨대, 중재자로서의 부모 역할은 자녀의 또래접촉을 먼저 주선하고 시작해주는 것이다. 부모들은 자녀가 특정한 또래와 우정을 형성하거나 만나는 놀이친구의 유형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같은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부모의 이러한 사회성 지도는 자녀의 또래관계의 질과 정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또래와의 접촉을 먼저 시도하거나 주선해 주었던 부모의 유아가 보다 폭넓은 또래 관계망을 가지며,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또래친구를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유능하며 또래 수용도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김희진, 1998; Bullock, 1989; Ladd, Profilet, & Hart, 1992).

또한, 부모는 감독자나 상담자로서 자녀의 사회적 기술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한다(Bhavnagri & Parke, 1991). 특히 이러한 유형의 부모 지지는 또래와의 상

호작용에서 협상하는 방법을 배울 시기에 있는 어린 유아에게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나이는 유아의 경우에도 부모가 대인간의 갈등나 어려움에 대해 교훈을 주거나 지도를 하기 위하여 이러한 역할을 채택할 수 있다. 그러나 Bhavnagri와 Parke(1991)는 연령에 적절한 부모의 감독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자녀들이 또래와 가지는 활동을 지나치게 통제할 경우 오히려 독립적인 사회적 기술의 발달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유아의 또래관계와 사회적 기술을 증진시키기 위한 부모의 지도·감독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부모의 노력이 적절한 수준으로 이루어질 때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자녀의 사회적 관계나 상호작용을 지도·감독하는 정도는 부모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즉, 부모가 자녀의 또래 상호작용을 지도하고 감독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선행연구(Putallaz, Costanzo, & Smith, 1991)에 의하면, 부모 자신의 아동기 또래관계 경험은 자녀와의 관계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자녀가 또래와 형성하는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Putallaz 등(1991)은 부모가 어렸을 때 가진 또래관계 경험이 자녀를 대하는 방식이나 자녀의 사회적 세계를 보는 관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설에 근거하여 취학전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아동기 경험을 회상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아동기의 또래관계를 따뜻하고 긍정적으로 회상한 부모는 자신들을 사회적으로 유능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우울한 아동기 기억을 가진 어머니는 남아의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Cohen과 Woody(1991)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이 보고되었다. 이밖에도 부모가 또래관계에 참여하는 정도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한다(Ladd et als., 1992; Mize, Pettit, & Brown, 1995; Profilet & Ladd, 1994). 예컨대, Ladd와 동료들(1992)은 수줍음을 타거나 위축되어 있는 자녀의 부모들은 장차 자녀가 또래에게 거부당할 수 있음을 우려하여 또래접촉을 더 주선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자녀가 매우 사교적인 부모들은 그렇게 하는 경향이 적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사회

적 기술이 중요하고 변화 가능한 특성이라고 보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또래관계에 더 많이 관여하고(김희진, 1998; Mills & Rubin, 1990), 자녀가 또래관계에 대한 관심이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놀이 기회를 주선해주고 곁에서 감독하려고 애쓰는 것으로 나타났다(Ladd & Golter, 1988).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어머니의 아동기 또래경험이나 그들의 신념 및 지각이 자녀의 사회적 관계에 참여하는 정도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어머니의 사회성지도를 하는 빈도는 어머니자신의 연령, 자녀의 성별 및 연령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수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어머니의 사회성지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된 바 없으므로 이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으나 전반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태도 등에 따른 차이는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기와 다른 성을 가진 자녀에게 더 관대하며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거나(하승민, 1984), 출생순위가 빠를수록 부모는 보다 많은 지도와 교육 등에 투자를 한다고 한다. 또한 외동이를 가진 부모는 외동이의 사회성발달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여 조기에 유아교육기관을 통해 사회성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래친구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줌으로써 사회생활을 많이 경험하게 한다고 한다(이성진·이기우, 1986). 부모의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부모는 자녀에 대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보이는 반면 사회계층이 낮은 부모는 거부적이거나 통제적인,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태도를 취한다고 한다(신경중, 1993; 임희수·박성연, 1994).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 부모가 자녀의 또래 상호작용을 감독하거나 또래관계를 지도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자녀의 또래활동을 적극적으로 주선해주고 계획하는 부모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있으므로 사회성 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행요인을 확인해보는 것은 중요할 수 있다. 특히, 부모 자신의 아동기 또래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된 바 없어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부모가 자녀의 또래관계를 직접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적절한 놀이환경을 조

성해주는 것과 같은 직접적인 사회성 지도는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의 사회적 삶에 관여하는 두 가지 경로 중 간접적 경로에 해당되는 양육방식이나 애착 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부모가 직접적으로 자녀의 사회적 삶에 관여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경로인 부모의 사회성 지도에 초점을 두고, 주양육자인 어머니에 의해 행해지는 사회성 지도의 실태를 분석해보며, 어머니의 아동기 또래관계 및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이 사회성 지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직접적인 사회성 지도 행동을 밝힘으로써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어머니의 사회성 지도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사회성 지도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3. 어머니의 아동기 또래관계와 사회성 지도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4. 어머니가 지각한 자녀의 사회적 능력과 사회성 지도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한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4~6세를 둔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유아의 특성을 먼저 살펴보면, 성별은 남아 169명(54.3%), 여아 143명(45.7%)이고, 연령별로는 4세아 46명(17.9%), 5세아 128명(44.0%), 6세아 119명(38.1%)이었다. 출생순위는 첫째와 둘째가 각각 반 정도를 차지하였다. 어머니의 연령은 24~49세로 분포되며 평균 35.8세였고, 교육수준은 전문대졸 이상

이 198명(66.0%), 고졸이하가 102명(34.0%)정도였다. 어머니 전체 중 32.8%가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직업유형에서 전문직이나 사무직이 56.4%를 차지하였다. 경제수준은 2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지는 가정이 20%, 200만원에서 300만 사이가 59.3%, 300만원 이상이 20.7%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 중에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응답자가 약 9%이었다.

조사에 앞서 연구에 사용된 모든 질문지는 연구자에 의해 번역되어 아동학 전공자들이 문항의 내용이나 표현의 적절성 등을 검토한 후에 완성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대상을 표집을 위해 지역적 형평을 고려하여 7개 유아교육기관을 선정하였다.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유아교육기관장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여 동의를 구한 다음, 교사가 유아를 통해 어머니용 질문지를 어머니에게 전달하였다. 완성된 질문지는 유아편으로 다시 회수하였다. 500부의 질문지가 배포된 후 1주일 후에 320부가 회수되었으며(회수율 64%) 부실하게 기재된 질문지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302부가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 2. 연구도구

#### 1) 어머니의 사회성 지도

어머니의 사회성 지도를 평가하기 위해 Cohen (1989)이 개발한 Parental Involvement Checklist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개 하위영역, 총 2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언 및 지지(Advice & Support, 5문항)는 또래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정서적인 지지나 충고를 주는 활동을, 높은 관심(High-Concern Involvement, 10문항)은 자녀가 또래와 문제를 가졌을 때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입하였던 어머니의 반응적 활동 등을 평가한다. 계획(Orchestration, 4문항)은 자녀의 사회성을 증진시키고 격려해주는 직접적인 지도활동을 평가하며, 감독(Monitoring, 5문항)은 자녀의 또래관계를 감독하고 추적하는 활동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인 어머니는 조사시점으로부터 지난 1개월 동안 각각의 문항에 해당되는 내용을 평가하였다. 응답은 6점 척도(1=전혀하지 않았다~6=1주에 여러번)

에 반응하게 되어 있으며 각 하위영역내의 문항이나 전체 문항을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사회성 지도에 관여하는 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Cohen (1989)이 제시한 신뢰도는 .61~.87이었으며 본 연구를 통해 산출된 Cronbach의 Alpha는 .90으로 나타났다.

## 2) 어머니의 아동기 또래관계

어머니의 아동기 또래관계에 대한 기억을 측정하기 위해 Putallaz와 동료들(1991)이 개발한 것을 본 연구자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또래간의 인기도, 사교성, 리더쉽 등을 평가하는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7=매우 그렇다)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전체 문항을 합산한 총점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또래관계가 좋았음을 의미한다. Putallaz 등(1991)의 연구에서는 내적일치도가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일치도는 .83으로 만족할 만 수준이었다.

## 3) 어머니가 지각한 유아의 사회적 능력

어머니가 지각한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어머니의 아동기 또래관계의 측정을 위해 사용하였던 Putallaz와 동료들(1991)의 척도를 다시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원래 어머니 자신이 어렸을 때의 사회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나, 현 시점에서 자녀의 사회적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도구를 사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어머니의 사회성 지도 실태

어머니의 사회성 지도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 사회성 지도의 전체 평균은 3.37로 응답가능 범위가 1~6점임을 고려할 때 보통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하위영역별로 보면, 자녀의 또래관계를 감독하고 파악하는 사회성 지도 형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M=4.76), 그 다음으로 또래와 문제가 있을 때 정서적인 지지나 조언을 하는 경향이 높았다(M=4.06). 자녀의 또래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이를 개선하기 위

해 개입하는 활동이나(M=2.73) 자녀가 또래와 어울릴 수 있도록 특별한 기회를 마련하는 계획활동(M=3.03)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사회성 지도 실태를 각 문항별로 살펴보았으며 이때 측정도구의 응답범주를 3개로 재분류하여 분석하였다(표 1). 이러한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사회성 지도의 보편적 형태를 알 수 있게 해주며 또한 앞으로 자녀의 또래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지도항목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해준다.

먼저, 어머니의 과반수 이상이 대체로 1주에 1번 이상정도는 자녀의 또래사이의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거나 해결방법에 대한 조언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친구사이의 문제에 관해 자녀와 얘기를 나눈다거나(59.7%) 자녀에게 친구들과 사이좋게 노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한다(55.5%)는 활동은 자주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친구와 어울리지 못해 속상해할 때 위로하는 활동(27.6%)은 그리 빈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자녀가 친구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이를 처리하는 일종의 대처행동에 속하는 각각의 활동(높은 관심)에 대한 어머니의 참여빈도는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1주에 1번 이상 참여한다고 한 반응만을 두고보면,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지 알기 위해 유치원 교사를 만난다(5.3%), 자녀와 비슷한 또래가 있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계획을 세운다(8.9%), 자녀가 친구와 놀 수 있도록 가족의 어떤 계획을 바꾼다(9.8%), 자녀의 친구 문제로 인해 전문가와 상의한다(4.6%)가 모두 10% 미만으로 이에 대한 어머니의 지도활동은 상당히 저조한 편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녀에게 밖에 나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도록 한다(40.7%), 다른 아이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한다(42.4%), 자녀들과 다른 아이들의 관계를 걱정한다(30.5%)의 활동은 대체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자녀의 또래관계를 직, 간접적으로 감독하는 활동에 관한 참여빈도는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81.3%의 어머니들이 적어도 1주에 1번 이상은 자녀가 다른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받아준다고 하였으며 71.9%가 다른 아이들과 잘 지내는지 물어보고 어떤

〈표 1〉 어머니의 사회성 지도 실태

하위 영역	문항	거의 안함	보통	자주	평균	표준 편차
조언/ 지지	5. 친구사이의 문제에 관해 자녀와 이야기를 나눔.	12.6	27.7	59.7	4.44	1.53
	7. 친구들과 사이좋게 노는 방법에 대해 조언함.	8.1	36.4	55.5	4.45	1.39
	19. 친구와 어울리지 못해 속상해할 때 위로함.	33.6	38.9	27.6	3.34	1.57
	21. 친구와 갈등이 있을 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함.	21.7	36.2	42.1	3.86	1.58
	23. 친구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방법에 대해 조언함.	16.5	30.7	52.8	4.27	1.58
높은 관심	9.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지 알기 위해 그 친구들의 어머니를 만남.	45.0	30.5	24.4	2.87	1.75
	11. 유치원에서 다른 아이들과 잘 지내는지 알기 위해 유치원 교사와 만남.	75.3	19.4	5.3	2.22	1.06
	12. 새 친구를 사귀는 문제에 대해 자녀와 이야기함.	39.6	35.1	25.3	3.13	1.65
	13. 자녀와 비슷한 또래와 아이가 있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계획을 세움.	61.6	29.5	8.9	2.27	1.36
	14. 집안에서 놀고 있는 자녀에게 밖에 나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도록 권함.	28.3	30.9	40.7	3.69	1.77
	15. 자녀와 다른 아이들과의 관계를 걱정함.	37.0	32.5	30.5	3.27	1.81
	17. 자녀가 친구와 놀 수 있도록 가족의 어떤 계획을 바꿈.	59.5	30.7	9.8	2.34	1.47
	18. 자녀의 친구에게 내 자녀가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봄.	52.8	31.0	16.2	2.62	1.59
	20. 다른 아이와 어떻게 우정을 나눌 수 있는지 조언함.	19.1	38.5	42.4	3.96	1.48
27. 자녀의 친구문제로 인해 전문가와 상의함.	90.5	4.9	4.6	1.41	1.09	
감독	2. 자녀가 친구들과 놀 때 어떻게 노는지 지켜봄.	13.6	28.9	57.5	4.41	1.57
	16. 유치원에서 다른 아이들과 잘 지내는지 자녀에게 물어봄.	4.2	23.9	71.9	5.00	1.23
	22. 자녀가 어떤 친구들과 노는지, 어디에서 노는지 파악함.	6.6	21.5	71.9	4.95	1.38
	25.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오는 친구가 누구인지 파악함.	23.2	21.2	55.6	4.17	1.90
	26. 자녀가 다른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받아줌.	5.9	12.8	81.3	5.26	1.28
계획	1. 자녀에게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함께 놀도록 권함.	22.6	30.3	47.1	3.95	1.74
	6. 자녀가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도록 그 친구들의 어머니와 계획을 세움.	53.2	31.8	14.9	2.47	1.57
	8. 자녀가 함께 놀 수 있도록 이웃에 있는 자녀의 친구를 초대함.	25.6	36.4	38.0	3.68	1.71
	10. 자녀에게 점심이나 저녁식사에 친구들을 초대하라고 말함.	69.1	21.5	9.4	2.03	1.40

친구들과 어디에서 노는지를 파악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또래관계를 관리하고 추천해주는 어머니의 사회화 지도전략은 높은 관심영역과 마찬가지로 하위영역 내에서도 문항간 변이가 있었다. 즉, 적어도 1주에 1번 이상은 자녀에게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함께 놀도록 권한다는 어머니가 과반수에 가까웠고(47.1%), 자녀가 함께 놀 수 있도록 이웃에 있는 자녀의 친구를 초대한다는 어머니도 38.0%나 차지하였다. 그러나 자녀가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도록 그 친구들의 어머니와 계획을 세운다고 한 어머니는 14.9%, 자녀에게 점심이나 저녁식사에 친구들을 초대하라고 말하는 어머니는 단지 9.4%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어머니들은 자녀가 또래

와 잘 지내는지 물어본다거나 어디에서 어떤 친구와 어울리는지를 파악하는 등을 감독하는 활동에 보다 자주 참여하고 있으며, 자녀에게 정서적인 지지나 조언을 해주는 것과 같은 형태로 사회성 지도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자녀의 또래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입하는 활동이나 자녀가 또래와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어머니가 특별한 계획을 세운다거나 자녀의 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오게 하는 등의 활동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어머니의 사회성지도

사회인구학적 변수인 유아의 성별, 연령, 출생순위,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취업유무에 따라 어머니의 사회성 지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유아의 출생순위 및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사회성 지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있었다( $t = -2.15, p < .05$ ). 즉, 여아의 어머니가 남아의 어머니보다 사회성 지도를 더 많이 하며 특히, 감독은 더 빈번히 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사회성 지도는 차이가 없었으나, 직업유무( $t = 2.11, p < .05$ )에 따라 사회성 지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계획' 하위영역의 경우 비취업모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t = 3.38, p < .001$ ). 어머니의 연령은 사회성 지도 중 조언 및 지지 하위영역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19, p < .05$ ).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전반적으로 본 연구대상 어머니들은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해 정서적 지지와 조언을 제공하고, 자녀의 또래관계를 감독하는 반면 자녀의 또래문제에 직접 개입하거나 또래와의 접촉기회를 의도적으로 마련하는 것과 같은 계획적 활동은 상대적으로 저조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젊은 어머니일수록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한 조언과 지지를 자주 하는 경향이 있으며, 비취업모가 취업모보다 사회성 지도에 많이 참여하고, 특히 자녀의 활동을 조직·계획하는 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어머니의 아동기 또래관계와 사회성 지도간의 관계

어머니가 회상하는 자신의 아동기 또래관계의 평균은 4.66( $SD = 0.85$ )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으며, 이와 사회성 지도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3>에서 보듯

<표 2> 유아의 성별 및 어머니 직업유무에 따른 사회성지도

		조언/지지	높은 관심	감독	계획	전체
		M(SD)	M(SD)	M(SD)	M(SD)	
유아 성별	남자	3.94(1.19)	2.69( .83)	4.63(1.08)	2.98(1.26)	3.51( .87)
	여자	4.19(1.16)	2.79( .85)	4.92( .92)	3.10(1.21)	3.74( .83)
	t값	-1.78	-.97	-2.38*	-.81	-2.19*
직업 유무	없다	4.09(1.19)	2.78( .83)	4.79(1.03)	3.19(1.24)	3.69( .86)
	있다	4.04(1.15)	2.62( .82)	4.64(1.05)	2.67(1.16)	3.42( .84)
	t값	.37	1.42	1.10	3.38**	2.30*

\*p < .05 \*\*p < .01

<표 3> 어머니의 아동기 또래관계 및 어머니가 지각한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사회성 지도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1. 어머니의 아동기 또래관계	1.00						
2. 어머니가 지각한 유아의 사회적능력	.16*	1.00					
3. 조언/지지	.19**	.12	1.00				
4. 높은 관심	.30**	.07	.66**	1.00			
5. 감독	.23**	.22**	.56**	.51**	1.00		
6. 계획	.24**	.10	.31**	.61**	.54**	1.00	
7. 사회성지도(전체)	.29**	.16*	.80**	.90**	.78**	.74**	1.00

\*p < .05 \*\*p < .01

이 어머니가 기억하는 자신의 아동기 또래관계와 사회성 지도는 서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r=.29, p<.05$ ). 어머니 자신이 어렸을 적에 또래관계가 좋았다고 응답한 어머니가 현재 자녀의 또래관계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하위 영역별의 상관관계를 보면, 조언 및 지지는 .19, 높은 관심, .30, 감독, .23, 계획, .24로 나타났다.

#### 4. 어머니가 지각한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사회성 지도간의 관계

먼저, 어머니가 지각한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평균값을 산출한 결과, 4.77(SD=0.86)로 나타나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자녀의 또래관계를 보통보다 다소 높은 정도로 평가하였다. 어머니가 지각한 자녀의 사회적 능력이 유아의 성별이나, 연령, 출생순위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하였으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어머니가 지각한 자녀의 사회적 능력과 사회성 지도에 참여하는 정도와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구한 결과(표 3), 비록 상관계수는 낮지만 사회적 능력 총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r=.16, p<.05$ ). 어머니가 지각한 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사회성 지도의 하위범주 중에 특히 감독수준과 .22의 상관을 보여 주어, 자녀가 사회적으로 유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어머니가 감독을 더 자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V. 논의 및 결론

학자들은 유아가 또래와 성공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의 역할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규명한 선행 연구는 부모가 직, 간접적으로 자녀의 사회적 능력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혹은 제한할 수도 있다는 전제를 암시한다. 그 동안 부모가 사회적 삶에 미치게 되는 두 가지 경로 중에 간접적인 경로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자녀의 또래관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부모의 행동인 직접적인 경로에 초

점을 둔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자녀의 또래관계를 관여하는 어머니의 사회성 지도실태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어머니의 사회성 지도가 자신의 아동기 또래관계와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사회성 지도 하위영역간의 점수는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어머니들은 자녀가 또래와 잘 지내는지 물어본다거나 어디에서 어떤 친구와 어울리는지를 파악하는 등의 감독하고 자녀가 또래와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을 주고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것과 같은 형태로 사회성 지도에 참여하고 있었다. 반면, 자녀의 또래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입하는 활동, 예컨대, 자녀의 또래관계를 알기 위해 친구 어머니나 유치원 교사를 만나거나 자녀가 친구와 함께 놀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하는 활동의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유아의 또래관계 문제로 전문가와 상담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항의 응답빈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주로 취하는 행동으로 사회적 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가진 유아가 본 연구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또래와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마련해주는 활동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자녀의 또래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개입하거나 의도적으로 계획하는 활동 등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은 자녀가 또래관계에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후적인 지도의 성격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래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도가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 대체로 어머니들은 자녀의 또래관계를 파악하고 감독하는 활동과 자녀에게 정서적인 지지나 조언을 해주는 것과 같은 방법들을 통한 일상적인 활동으로 참여하는 반면, 자녀의 사회적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의도적인 상황을 설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개입 활동



은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나타난 결과를 서구 어머니의 실태와 비교해 볼 때, 거의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사회성 지도형태는 동서양간에 두드러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서구의 어머니들도 자녀가 다른 아이들과 놀 때 지켜본다거나 가정 밖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는지 물어 보고 어디에서 누구와 노는지를 파악하는 활동은 빈번한 반면,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자녀와 함께 놀도록 주선해주는 등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관리행동은 자주 하지 않는 경향을 띠었다(Cohen, 1989). 많은 어머니들이 유아교육기관에 자녀를 등록시키는 이유 중의 하나로 비슷한 연령의 또래와 어울리게 하기 위함을 꼽는다. 대다수 어머니가 자녀를 유아교육기관에 보내기만 하면 이것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만 유아의 또래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사회성 지도에 있어 여아의 어머니가 남아의 어머니보다 더 많이 참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감독은 더 빈번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인 경우 특히 감독 하위요인의 점수가 높게 나온 사실은 여아가 어머니의 보호나 간섭을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Cohen(1989)의 연구에서는 여아의 어머니가 남아의 어머니보다 자녀의 또래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이 많고 정서적인 지지를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어머니의 사회성 지도를 조사한 국내연구가 없으므로 기존의 연구결과와 비교가 가능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성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 한다(임희수·박성연, 1994).

또한 젊은 어머니일수록 자녀의 사회적 삶에 관해 조언 및 지지를 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비취업모의 사회성 지도의 총점은 취업모에 비해 높았고, 특히 '계획' 하위영역의 평균점수가 높았다.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사회성 지도에 참여가 낮은 것은 취업모의 경우 자녀를 지도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특히, 취업모에게 있어 자녀가 또래와 어울릴 수 있는 활동을 주선해주고 계획하는 활동이 저조한 것은 물리적 시간의 부족함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셋째, 어머니가 회상하는 자신의 아동기 또래관계와 사회성 지도는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어렸을 때 자신의 또래관계가 유능하였다고 응답한 어머니일수록 자녀의 사회성 지도를 더 활발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어머니의 초기 사회적 경험의 개인차는 자녀의 사회적 삶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정도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아동기 또래관계가 좋았다고 회상하는 어머니는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가치를 부여할 것이며 따라서 자녀에게도 같은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해 주기 위해 어머니가 또래상호작용을 지도하는 빈도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아동기 또래관계가 좋았다고 기억하는 어머니들은 현재에도 사회적으로 유능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술이 발달된 사람은 사회적 관계망이 넓을 것이며, 따라서 자녀들이 비슷한 연령의 또래와 어울릴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게 될 것이다.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많아지게 되면 어머니는 자녀가 또래와 긍정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도록 이에 필요한 기술과 행동의 레퍼토리를 제공해주는 등의 그들의 사회성 지도도 빈번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성이 높은 어머니들이 양육행동에 있어서 자녀에게 활동성이나 사교성을 보다 많이 격려하며 사회적인 접촉의 기회를 다양하고 빈번하게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정승원과 도현심(1997)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본다.

넷째, 어머니가 지각한 자녀의 사회적 능력과 사회성 지도간에는 비록 상관의 정도는 낮지만 관련이 있었다. 특히, 감독을 자주 하는 어머니가 자녀의 사회적 능력을 높게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자녀가 인기가 없다고 인식하는 어머니일수록 사회성 지도를 활발하게 한다고 제시한 선행연구(Cohen, 1989; Mize et als., 1995; Profflet & Ladd, 1994)와 상반된다. Ladd 등(1991)은 자녀가 인기가 없다고 보는 어머니들이 또래에게 배척받을 것을 염려하여 자녀의 사회적 기술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성 지도를 적극적으로 하는 반면, 자녀가 또래와 잘 지낸다고 인식하면 심리적으로 안심이 되어 자녀의 또래 상호작용에 관여하는 정도가 낮아진다고 설명

하였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서 나온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어머니들이 자녀의 또래관계에 관여하게 되는 이유가 다양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즉, 또래와 비교적 사이가 좋다고 인식하는 어머니들은 자녀의 사회적 능력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 그렇지 못하다고 평가하는 어머니들은 자녀의 사회적 기술을 개선시키기 위한 대처행동으로 자녀의 또래관계에 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자녀의 능력에 대한 평가에 따라 부모가 그들의 발달을 지원해주는 양육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전경숙, 1992)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서구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음은 문화적인 차이 때문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규명하기 위한 추후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유아의 사회적 삶에 어머니가 관여하는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행변수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으므로 어머니의 이러한 참여가 실제적으로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이 있는지는 탐색하지 않았다. 이것은 추후연구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자료수집과정에서 연구대상인 어머니가 자신의 사회성지도 실태와 자녀의 사회적 유능성을 동시에 보고하여 동일한 평가자로 인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한점도 제기될 수 있다. 앞으로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로 인해 가족-유아, 유아-또래체계의 관계 특성이 명확하게 규명되어 아동의 사회성 도모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참 고 문 헌】

- 김숙경(1989). 외동이와 형제아의 모-자녀관계 및 사회성에 관한 비교 연구. *아동학회지* 11, 43-57.
- 김상희·박성연(1990). 형제간 및 또래간 사회성에 영향을 주는 가족 인구학적 변인. *아동학회지* 11, 59-81.
- 김지신·박성연(1997). 어머니의 전통-근대 가치관과 양육행동 및 아동의 사회적 행동. *아동학회지* 18, 125-142.
- 김희진(1998). 어머니의 인지, 어머니의 지도/감독행동, 그리고 유아의 또래간 유능성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 43-54.
- 박용임(1998).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애착 및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 117-129.
- 신경종(1993). 사회계층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연미희(1998).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 111-122.
- 이성진·이기우(1986). 한 자녀 가정에 대한 조사연구. 서울: 대한가족계획협회.
- 임희수·박성연(1994). 첫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관련변인. *아동학회지* 15, 153-168.
- 전경숙(1992). 부모-아동간 신념의 일치도와 아동의 학업 성취도 및 자기능력지각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3, 251-272.
- 정승원·도현심(1997). 부모의 사회성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수줍음. *아동학회지* 18, 149-159.
- 조은영(1996). 어머니의 아동 양육방식이 5세 아동의 애착관계와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7, 213-226.
- 하승민(1984). 어머니의 성역할 태도와 자녀양육 가치관.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ullock, J. R. (1989).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management of peer interaction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 263-269.
- Bhavnagri, N., & Parke, R. D. (1991). Parents as direct facilitators of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Effects of age of child and sex of parent.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8, 423-440.
- Cohen, J. S. (1989). Maternal Involvement in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during middle childhoo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terloo, Waterloo, Ontario, Canada.
- Cohen, J. S., & Woody, E. (1991). Maternal involvement in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The contributions of mothers' experiences,

- values and beliefs.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Seattle, WA.
- Dodge, K. A., Coie, J. D., & Brakke, N. P. (1982). Behavior patterns of socially rejected and neglected preadolescent: The roles of social approach and agg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0, 389-410.
- Dodge, K. A., & Frame, C. L. (1982). Social cognitive biases and deficits in aggressive boys. *Child Development* 53, 620-635.
- Hymel, S., Rubin, K. H., Rowden, L., & LeMare, L. (1990).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Longitudinal prediction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from middle to lat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1, 2004-2021.
- Kupersmidt, J. B., & Coie, J. D. (1990). Preadolescent peer status, agg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as predictors of externalizing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1, 1350-1362.
- Ladd, G. W., & Goler, B. S. (1988). Parents' management of preschooler's peer relations: Is it related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4, 109-117.
- Ladd, G. W., Profilet, S. M., & Hart, C. H. (1992). Parents' management of children's peer relations: Facilitating and supervising children's activities in the peer culture. In R. D. Parke & G. W. Ladd (Eds.), *Family peer relationships: Modes of linkages* (pp. 215-253). Hillsdale, NJ: Erlbaum.
- Mills, R. L., & Rubin, K. H. (1990). Parental beliefs about problematic social behavior in early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1, 138-151.
- Mize, J., Pettit, G., & Brown, E. G. (1995). Mothers' supervision of their children's peer play: Relations with beliefs, perception, and knowledge. *Developmental Psychology* 31, 311-321.
- Parke, R. D., MacDonald, K. B., Beitel, A., & Bhavnagri, N. (1988). The role of the family in the development of peer relationships. In R. Peters & R. J. McMahon (Eds.), *Social learning systems approaches to marriage and the family* (pp. 17-44). New York: Brunner/Mazel.
- Parke, K. A., & Waters, E. (1989). Security of attachment and preschool friendships. *Child Development* 60, 1076-1081.
- Pettit, G. S., Clawson, M. A., Dodge, K. A., & Bates, J. E. (1996). Stability and change in peer-rejected status: The role of child behavior, parenting, and family ecology. *Merrill-Palmer Quarterly* 42, 267-294.
- Profilet, S. M., & Ladd, G. W. (1994). Do mothers' perceptions and concerns about preschoolers' peer competence predict their peer-management practices? *Social Development* 3, 205-221.
- Putallaz, M., Costanzo, P. R., & Smith, R. B. (1991). Maternal recollections of childhood peer relationships: Implications for their children's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8, 403-422.
- Putallaz, M., & Heflin, A. H. (1990). Parent-child interaction.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pp. 189-216).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aughn, B. E., & Langlois, J. H. (1983). Physical attractiveness as a correlated of peer status and social competence in preschool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9, 561-567.